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7.11

미 증시,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중소형주 강세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러셀2000 강세

•미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부진 속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높은 기대감 영향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임의소비재와 러셀 2000 지수가 강세를 보임. 금일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가지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뉴욕 연은 소비자대조사에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였고 6월 맨하임 중고차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4.2%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둔화. 금일 컨퍼런스보드 고용동향지수(ETI) 공개. ETI는 지난 달 115.53에서 1.1% 하락한 114.31 기록 (다우 +0.62%, S&P500 +0.24%, 나스닥 +0.18%, 러셀2000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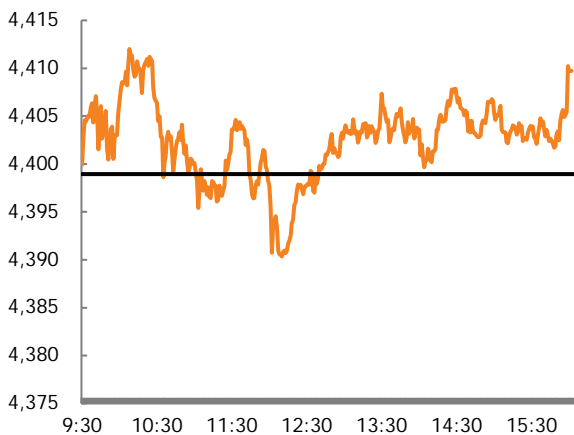
특이 종목: 경기민감주 강세

•나스닥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중 상위 100(금융제외)개 기업을 추적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오는 14일 리밸런싱 계획을 발표하고 24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Big 7(또는 Magnificent Seven)에 대한 비중이 55%에 달해 메가 테크 기업들의 지나친 비중에 대한 문제는 지속 제기. 다만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의 추가 또는 제외는 없을 예정. 이 같은 소식에 알파벳(-2.7%), 아마존(-2.0%), 테슬라(-1.8%), 마이크로소프트(-1.6%) 등 주가 하락. 그러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높은 기대감 영향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와 임의소비재 업종의 강세가 이어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엔비디아(-0.8%) 하락에도 불구하고 2% 넘게 상승

한국 증시 전망: 금리 안정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13%, MSCI 신흥 지수 ETF는 0.0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7.2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3% 상승. KOSPI는 0.2~0.4%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미 증시에서 Mega tech 기업들의 주가 부진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최근 크레딧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었던 '새마을금고' 이슈는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 이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던 국고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 여부 지켜봐야.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20.70	-0.24	상해종합	3,203.70	+0.22
KOSDAQ	860.35	-0.80	홍콩항셱	18,479.72	+0.62
DOW	33,944.40	+0.62	베트남	1,149.02	+0.96
NASDAQ	13,685.48	+0.18	유로스톡스 50	4,256.51	+0.47
S&P 500	4,409.53	+0.24	영국	7,273.79	+0.23
캐나다	19,822.45	-0.04	독일	15,673.16	+0.45
일본	32,189.73	-0.61	프랑스	7,143.69	+0.4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기대인플레이션 ② 고용동향지수(ETI)

미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부진 속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높은 기대감 영향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임의소비재와 러셀 2000 지수가 강세를 보임.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7개 기업) 기업들은 금일 1~2%대의 약세를 보였는데, 나스닥 10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달 중 있을 예정이기 때문. 상위 7개 기업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로 그 동안 ‘과도’하다는 지적 이어져. 다만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의 추가 또는 제외는 없을 예정.

금일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가지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우선 뉴욕 연연에서 발표한 6월 소비자기대조사(SCE)에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이 5월 4.1%에서 6월 3.8%로 3개월 연속 하락. 이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 최근 발언을 이어가는 여러 연준 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 ‘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 강조. 이는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중고차 도매가격지수인 맨하임(Manheim) 중고차 가격 지수는 6월 전월대비 4.2%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와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기록. 특히 소형차 및 중형차 등 대중적 구매가 큰 부문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년대비로는 10.3% 하락해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도매 중고차 가격인 소비자물가 중고차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평균 2~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상품물가 하방 압력을 커질 것으로 기대

지난 주 고용관련 지표가 많이 나온 가운데, 금일 컨퍼런스보드 고용동향지수(ETI) 공개. ETI는 지난 달 115.53에서 1.1% 하락한 114.31 기록. ETI는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고용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음을 보여줘. ETI는 2022년 3월 정점 이후 둔화추세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 컨퍼런스보드는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 말과 내년 초 고용 시장에 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중반까지 실업률 4.5%로 상승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둔화 전망. ETI는 고용시장의 추세를 알 수 있는 8가지 항목을 종합해 발표

무디스(Moody's)는 최근 고용시장과 관련해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인상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만큼 빠르지 않다고 평가. 또한 고용 성장은 견고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민간 부문보다 부진했던 공공 부문 고용의 재건으로 과장되었다면서 기술 부문의 고용시장 둔화 올해 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여기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인 자레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냉각 필요성을 강조

이 날 발언에 나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겸 은행감독의장은 은행규제 강화를 강조하였는데,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와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손익과 관련한 부분까지 범위 확대를 언급.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두 번 더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말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긴축 캠페인의 끝에 가깝지만 아직까지 금리 수준이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한 점은 연준의 금리인상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나타내



Mega tech 부진 vs. 경기민감주 강세

나스닥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중 상위 100(금융제외)개 기업을 추적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오는 14일 리밸런싱 계획을 발표하고 24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Big 7(또는 Magnificent Seven)에 대한 비중이 55%에 달해 메가 테크 기업들의 지나친 비중에 대한 문제는 지속 제기. 다만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의 추가 또는 제외는 없을 예정. 이 같은 소식에 알파벳(-2.7%), 아마존(-2.0%), 테슬라(-1.8%), 마이크로소프트(-1.6%) 등 주가 하락

그러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높은 기대감 영향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와 임의소비재 업종의 강세가 이어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엔비디아(-0.8%) 하락에도 불구하고 2% 넘게 상승했는데 브로드컴(+3.7%), 텍사스인스트루먼트(+3.3%), 마이크론(+3.0%), 인텔(+2.8%) 등이 고루 상승했기 때문. 임의소비재 업종에서는 부킹홀딩스(+3.5%), 라스베이가스앤즈(+3.4%), 스타벅스(+3.2%), 오렐리 오토모티브(+2.9%),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상승 랠리가 나타나

또한 노바백스(+29.5%)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급등. 카바나(+16.4%)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고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강세. 얼마 전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된 아이칸 엔터프라이즈(+20.2%)는 Carl Icahn의 개인 대출 조건 변경 소식에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85	대형 가치주 ETF (IVE)	+0.57
클린테크 ETF (CTEC)	+1.47	중형 가치주 ETF (IWS)	+0.88
소매업체 ETF (XLY)	+0.31	소형 가치주 ETF (IWN)	+1.38
온라인소매 ETF (EBIZ)	+1.31	대형 성장주 ETF (VUG)	-0.00
미국 인프라 ETF (PAVE)	+1.52	중형 성장주 ETF (IWP)	+1.75
핀테크 ETF (FINX)	+1.72	소형 성장주 ETF (IWO)	+1.9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1	퀄리티 배당주 ETF (ODIV)	+0.17
클라우드 ETF (CLOU)	+1.8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35
사이버보안 ETF (BUG)	+2.42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15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73	미국 국채 ETF (IEF)	+0.5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14	하이일드 ETF (JNK)	+0.46
바이오섹터 ETF (IBB)	+1.83	신흥국 채권 ETF (EMBD)	+0.33
로봇&AI ETF (BOTZ)	+1.28	물가연동채 ETF (TIP)	+0.24
반도체 ETF (SMH)	+1.4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OD)	+0.5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산업재	911.11	+1.39	+0.33	+5.52
헬스케어	1,516.29	+0.81	-2.09	+0.08
에너지	624.08	+0.76	+0.08	+0.53
금융	560.52	+0.36	-0.10	+1.94
부동산	237.98	+0.34	+0.55	+2.53
경기소비재	1,327.60	+0.11	-0.22	+5.45
필수소비재	770.56	+0.03	-1.06	+1.00
소재	511.42	-0.01	-2.01	+3.18
IT	3,040.34	-0.02	-1.47	+3.75
유틸리티	330.75	-0.42	-0.62	-1.26
커뮤니케이션	213.41	-0.92	-1.24	+0.4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한국
주식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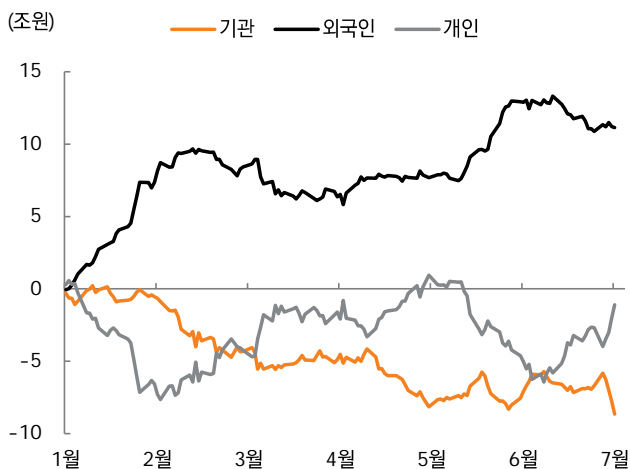
반도체 강세와 금리 안정 여부

MSCI 한국 지수 ETF는 0.13%, MSCI 신흥 지수 ETF는 0.0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97.2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3% 상승. KOSPI는 0.2~0.4%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미 증시에서 Mega tech 기업들의 주가 부진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 이후,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 이로 인해 3분기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전망 이어져. 실제 국내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중 삼성전자(특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의미 있어. 그러나 지난 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전체적인 이익 레벨이 하향 조정되었음. 그런 의미에서 3분기 이익 전망치 상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다만 반도체 부문의 이익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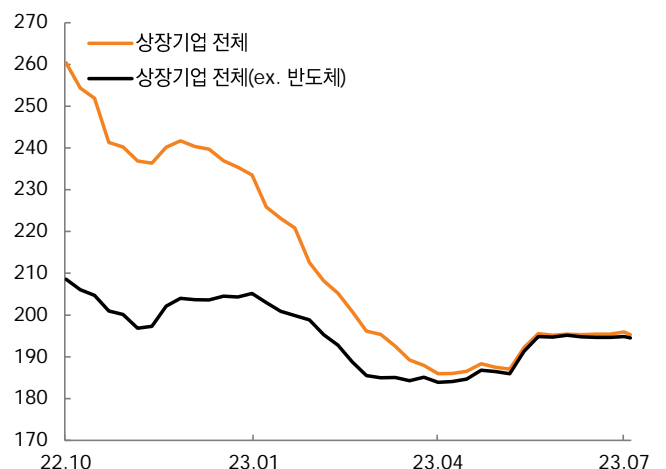
최근 크레딧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었던 ‘새마을금고’ 이슈는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 전일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해 단기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 이미 각 은행별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약 6조원이 넘는 RP 계약 체결. 이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던 국고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 여부 지켜봐야

연초 이후 국내 수급 동향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국내 영업이익 추이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단위: 조원



달러인덱스, 5월 중순 이후 최저

6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 달러인덱스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로 지난 5월 중순이후 처음으로 102선을 하회. 특히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소비자기대조사(SCE)에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4.1%에서 3.8%로 둔화.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점도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 미 국채 수익률은 2년물 4.87%, 10년물 4.00%로 전일대비 각각 8bp, 6bp 하락

국제 유가는 전일대비 소폭 하락하였는데, 전일 발표된 중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 (YoY -5.0%)을 크게 하회한 -5.4%로 발표되었기 때문.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로 수요감소와 디플레이션 우려를 부각시켜. 또한 중국 소비가 큰 석탄과 철강 가격도 하락. 호주 뉴캐슬 석탄 선물 가격은 7월 초 톤당 145달러에서 14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철강 선물 가격은 톤당 3,650위안 아래로 급락하며 6월 2일 이후 최저 수준 기록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 미국의 경우, 더운 날씨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3% 이상 상승. 미국 현지 기상학자들은 오는 7월 25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예상. 이로 인해 가정과 건물에서 냉방 목적으로 천연가스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면 영국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며 가격 하락 압력을 높여. 그러나 노르웨이의 생산 중단과 네덜란드의 Groningen 인근 유럽 최대 가스 사이트 폐쇄 영향으로 낙폭은 제한적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99	-0.91	+3.61	Dollar Index	101.957	-0.31	-1.00
브렌트유	77.69	-0.78	+4.30	EUR/USD	1.1001	+0.31	+0.82
천연가스	2.67	+3.02	-4.93	USD/JPY	141.31	-0.63	-2.33
금	1,931.00	-0.09	+0.07	GBP/USD	1.2861	+0.17	+1.32
은	23.35	+0.20	+1.37	USD/CHF	0.8853	-0.38	-1.23
알루미늄	2,147.00	+0.07	-0.49	AUD/USD	0.6675	-0.22	+0.03
전기동	8,372.50	+0.02	-0.30	USD/CAD	1.3280	+0.05	+0.23
아연	2,353.00	-0.38	-0.51	USD/RUB	90.9425	-0.47	+1.87
옥수수	499.50	+0.91	+0.86	USD/BRL	4.8991	+0.56	+1.84
밀	646.25	-0.58	-0.81	USD/CNH	7.2294	-0.04	-0.32
대두	1,345.50	+1.95	+0.02	USD/KRW	1,306.50	+0.11	-0.11
커피	159.85	-0.65	+0.53	USD/KRW NDF1M	1,297.28	-0.02	-0.5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94	-6.78	+13.93	스페인	3.695	+0.80	+25.50
한국	3.867	+10.90	+27.70	포르투갈	3.377	+0.70	+18.90
일본	0.462	+3.40	+5.70	그리스	4.086	+11.10	+38.00
독일	2.640	+0.30	+20.30	이탈리아	4.386	+3.00	+25.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